



# 양계업계 뉴스 초점

## 노계정육구입자금 지원

### 농림부 난기안정 위해 60억 용자

농림부는 산란계 사육수수의 증가와 계란 소비부진이 겹쳐 산란계 농가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발기금에서 60억원을 확보하여 육가공업체에 노계 정육구입자금을 지원하였다.

농림부는 육가공업체에 노계 정육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산란계 도태를 촉진하고, 분회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사육조절을 유도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양계 수급조절 사업은 자조금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을 수립하여 놓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연리 5%,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각 시·도를 통해 육가공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4천톤 중 1천여톤의 신청에 그쳐 재차 관련 업계와 협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2000년 계란가공 및 집하장 지원계획

### 각 2개소씩 총 240억원

농림부가 최근 발표한 2000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2000년도에 계란가공공장 및 집하장에 지원하게 될 자금은 총 24억1천500만원으로 이중 가공에 17억1천500만원, 집하장에 7억원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가공에 경기도(주)참나무촌과 충북(주)풍림산업이며, 집하장은 충남 홍성축협과 전남 광주전남양계축협이다.

각 업체는 지난 2월말까지 세부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검토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지난 99년까지 6개소에 지원된 자금은 총 158억6천7백만원이며, 건축, 가공시설, 냉장(동)시설, 폐수, 발전시설, 차량, 장비구입 등에 사용되는데 부지매입비 활용은 제외되어 있다.

**육계자금을 매년 하락 예상  
농경련, 2010년 65%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초 농업전망 2000을 발표하였는데 2000년 자금율은 87.7%로 전망하였고, 향후 2010년에는 수입가 하락, 원화절상 등으로 65.8%로 낮아진다는 진단을 하였다. 이 전망을 보면 1인당 소비량은 7.18kg에서 10년간 약 35%가 증가하는 9.68kg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산지 가격은 kg당 1,027원에서 약 30%가 낮은 733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소비량에 비해 국내 생산량이 팽잉을 보일 전망을 하여 다소 육계업 경기가 나쁠 수도 있음을 예고하였다.

**계란가격 사상 최저 장기간 유지  
실거래 가격 사료비 수준**

지난해 추석 전부터 시작된 계란가격 폭락이 금년 현재까지 이어져 채란농가에 엄청난 재정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본회에서 이미 국세청에 산란·육계업의 소득표준율을 0%로 재조정해 달라는 건의를하여 “표준율이 자신의 실제 소득을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개별사업자의 특수사정(경비의 과다발생등)을 반영하여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난가는 사육수수가 현재보다 10% 이상 감소해야 정상을 찾을 것으

로 보여 생산비선 이상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리도축·가공시설 설치 지원  
계열화사업자 2개소에 91억원 용자**

농림부는 오리의 위생적인 도축, 가공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오리고기를 공급케 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오리의 생산, 도축·가공 및 판매에 이르는 계열화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로서 오리도축장 경영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다. 사업기간은 2000. 1~2001. 12까지 2년간이며, 2개소에 총 91억9천5백만원이 용자조건 연리 5%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2000년도 사업자로는 혜성농산과 화인코리아로 확정된 상태이다. 금년 지원금은 40억원이고, 2001년에 51억9천5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삼계업의 합리적 발전방안 워크샵 개최  
생산 및 사양체계 확립방안 모색**

축산신문사는 오는 3월 3일 유성에서 삼계사업의 합리적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본회를 비롯 계육협회, 가금학회, 사료협회, 동물약품협회가 후원하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닭고기 음식인 삼계탕을 보다 발전시켜 닭고기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차원에서 삼계용 닭의 생산이 이원화되어 업계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까지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초강연은 삼계의 생산체계와 사양체계, 가공유통체계 확립방안으로 나누어 세가지 주제로 실시되며, 각 주제마다 토론이 병행된다. **양계**